



스위스 탐구 생활: 취리히에서 제대로 놀아 보기.

로컬들의 도시 사용법

누구나 여행하는 방식 말고

좀 더 특별한 도시 여행법

낮에는 남성 전용 혹은 여성 전용, 밤에는 모두 입장

낮에는 수영하고, 밤 되면 기분 좋게 한잔할 수 있는 바디 바

노을 속으로 패들 저어 나가고

트램 타고 떠나는 취리히 디자인 여행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1 순위가 바로 여행이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곧 떠날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여행지의 숨은 묘미를 하나씩 공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곧 다시 스위스를 여행하기를 기대하며, 그 네 번째 지역으로 스위스 최대의 도시, 취리히(Zurich) 소개한다. 특히 로컬들이 이 대도시에서 어떻게 즐거움과 묘미를 찾는지 그 방법을 소개한다.

여름 공기가 취리히를 뒤덮으면 로컬들은 저녁 약속을 잡는다. 장소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바가 아니다. 바로 풀장이다. 취리히에는 호수와 강가를 따라 여름 시즌 동안만 한시적으로 오픈하는 야외 수영장이 곳곳에 있다. 낮 동안은 수영을 즐기며 시원한 음료와 함께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 로컬들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다. 이 풀장들이 더욱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해질녘이다. 해가 지고 나면 수영장은 힘찬 바로 변신한다. 로컬들은 이런 곳을 “바디 바(Badi-Bars)”라고 부른다. 칵테일이나 맥주 한 잔을 들고 콘서트, 낭독, 영화 관람 등을 즐길 수 있어 여름이 되면 로컬들 사이에 무척 인기다. 취리히 호수에서 페달 보트를 타거나, 스탠드 업 패들 보트를 즐기기도 한다. 단, 스위스의 호수나 강은 빙하가 녹은 물이기 때문에 수온이 생각보다 낮으므로,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1. 취리히(Zurich)의 남성 전용 풀장, 리미니(Rimini)

리미니는 취리히의 풀장으로 스위스 로컬들에게 가장 스위스에서 아름다운 노천 바로도 인정받는다. 목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명소는 취리히 구시가지 한복판, “산첸그라벤(Schanzengraben)”이라 불리는 성곽 안쪽에 숨어 있다. 파라데플라츠(Paradeplatz)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데, 1864년부터 현재까지 남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야외수영장이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낮에는 남성들의 전용공간으로 운영되지만, 저녁이 되면 강가에 위치한 야외수영장이 야외 바로 변신한다. 물 위에 떠 있는 목재 데크와 야외수영장이라는 독특한 세팅 때문에 지중해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풍기기도 한다.

리미니바는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이면 매일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음료와 스낵 외에도 수영장 이용자들이 직접 그릴에서 구운 각종 요리를 즐길 수 있기도 하다. 직접 그릴에서 요리하는 것은 매우 유쾌한 경험일 뿐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준다.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피자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취리히에서 가장 피자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리미니바에서는 가을이 되면 풍류 요리를 메뉴판에 추가하고, 10월 한 달 동안은 따뜻하게 난방이 되어 할머니의 포근한 품이 떠오르는 사랑스런 장식의 텐트가 설치되기도 한다.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문화 행사도 시도되었는데,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영화의 밤, 예술 전시회, 황소 타기, 테이블 풋볼 경기, 복싱 경기, 음반 발표회, 칠아웃나잇(Chillout-Night) 등을 비롯하여 스위스 전통 씨름인 슈빙엔(Schwingen) 경기도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최근 주목받는 행사로는 월요일 저녁 열리는 장터로, 유용한 생활용품에서부터 명품 옷에 이르는 다양한 물건들이 싼값에 거래되고 있다.

2. 힘하고도 문화적인, 제바드 엔게(Seebad Enge)

제바드 엔게는 호숫가에 위치한 풀장으로, 저녁에는 신선한 음료와 홈메이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낮에는 광합성과 수영을 원하는 이들로 가득 차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 후 휴식과 모임을 위한 낭만적인 바로 변신한다. 밤 8 시 이후에는 수영이 금지된다. 1960 년대에 만들어진 이 풀장에서 음료와 함께 그릴에서 요리한 맛있는 안주도 맛볼 수 있다. 여름에는 저녁 낭독, 콘서트,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매일 문을 연다.

페달로(Pedalo)라고 불리는 페달 보트를 대여해서 취리히 호수를 유유자적하게 떠다녀 보아도 좋다.

3. 미텐키(Mythenquai) 리도

취리히(Zurich) 호숫가의 미텐키 리도는 250m 길이의 비치다. 수영을 원치 않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호숫가의 특별한 공간과 워터 슬라이드가 가족들에게 특히 인기다. 이 비치는 진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초의 스탠드 업 패들보드 자동 대여기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언급할만한 것은 근처에 있는 힐틀(Hiltl) 레스토랑으로, 맛있는 채식을 맛볼 수 있고, 다채로운 읽을거리가 있는 책 교환 박스를 찾아볼 수 있다. 트램 7 번을 타고 “브루나우슈트라세(Brunaustrasse)”까지 가거나 버스 161 번이나 165 번을 타고 “슈쿨렌텐삼룽(Sukkulentensammlung)”에서 하차하면 된다.

4. 스탠드 업 패들(Stand up paddle)

SUP 는 스탠드 업 패들(Stand up paddle)의 약자로, 스위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상 스포츠다. 패들을 리드미컬하게 저으며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물소리와 함께 자유와 해방의 기분이 펼쳐진다. 지난 세기, 하와이의 서핑 강사들은 보드에 서서 패들을 저으면 물에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새로운 수상 스포츠 트렌드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곧 미국에서 새로운 레포츠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소문이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없이 많은 호수와 강이 있는 스위스는 자연스럽게 스탠드 업 패들러들의 천국이 되었다.

취리히에서는 최근 SUP 가 로컬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다. 제바드 우토케(Seebad Utoquai)를 찾아가면 스탠드 업 패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3-4m 길이의 보드에 서서 노를 저으며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를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다. 처음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관광객들도 쉽게 도전해 볼 만하다. 게다가 스탠드 업 패들로 취리히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SUP 시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참가해볼 만하다. 이른 새벽 고요 속에서의 글라이딩이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오후 한때의 패들링이든, 낭만적인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물을 향해 나아가든, SUP 는 모두가 하루 중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임이 분명하다.

5. 취리히(Zürich)의 디자인라인, 4 번 트램

트램이 명물인 도시, 취리히에서도 꼭 한 번 타봐야 할 트램이 있다. 바로, 4 번 트램이다. 취리히 호수 북쪽 면에 자리한 티펜브룬네(Tiefenbrunnen)에서 시작해, 오페라하우스(Opernhaus), 벨뷰(Bellevue), 시청사(Rathaus), 쉐트랄(Central), 중앙역(Bahnhofquai/HB)를 지나 취리히 서부(Zurich West)로 향해



에셔비스광장(Escher-Wyss-Platz), 슈프바우(Schiffbau), 토니-아레알(Toni-Areal) 등 옛 산업지대를 복원해 각종 문화공간으로 만든 장소들을 지나 알트슈테텐 북역(Bahnhof Altstetten Nord)까지 가는 노선이다. 취리히의 옛날과 현대를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고, 그 둘이 만나 어떻게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취리히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볼 수 있는 노선이라 특별하다

파빌롱 르 코르뷔지에(Pavillon Le Corbusier), 모노클(Monocle) 숭 & 카페, 디자인 박물관(Museum für Gestaltung), 임 비아독트(Im Viadukt), 프라이탁(Freitag) 타워, 디지털 아트 박물관(MuDa)을 노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